

교회는 언제쯤 온전한예배와 사역을 회복할까?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선언으로 원 리더십 회복 및 장기전 대비



▲ 사랑의교회가 31일 성령강림주일예배를 드렸다. ©사랑의교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있다.

그 옛날 자유롭게 모였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이제 새삼 깨닫게 된다. 옆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저 그림자만 하고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드린다는 생각에 억한 감정을 누르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잘 알고 겸손히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 분야가 쉴 다운되고 한국교회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2개월여가 넘도록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다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자 정부에서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출구전략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교회 역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한교총을 통해서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했다.

▲ 원 리더십을 회복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태원 게이클럽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몇몇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원 메시지를 내 보내게 되었고, 원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 사회와 타종교에서도 역시 "한국교회는 살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도전을 받고 있다.

▲ 장기전 대비

한국교회는 예배회복의 날 이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 래야 사막화 되어가는 정신세계와 황폐화된 영적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럴 때 사람의 내면적 저항인자와 사회적인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고 진정한 한국교회 예배회복이 될 것이다. 한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31일 성령강림주일예배를 드렸다. 이날도 교회는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출입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또 자리마다 간격을 두고 스티커로 표기해 앉도록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을 지켰다. 이를 위해 기존 6천5백석의 본당 출입 인원을 1천5백 ~ 1천8백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교인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교회는 "출입하는 성도들을 위해 손 소독기를 출입구마다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손 소독제의 경우 자동으로 분사되는 소독기를 설치해 접촉을 최소화했다"며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핸드폰을 소독 후 소지할 수 있도록 초고속 핸드폰소독기를 출입구에 비치했다"고 했다.

수도권 모 목사는 "이번 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올까 기다려진다. '기존에 왔던 성도들이 안 올까, 아니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복음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며, 또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그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 밖에 없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한국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연종기자

이태원 게이클럽을 통한 제2차 코로나19 확산

“신천지 사태 때처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게이들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게이들도 이웃에 떼 끼치는 활동 자체해 주길”



▲ 용인 66번째 환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시스

코로나19 상황을 마주하며 우리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속에 한국 기도하는 교회들 연합은 "한국교회"와 "국민일보"의 사명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한국교회와 국민일보는 그저 사회적 풍조와 흐름에 머리를 숙인 채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교회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장소에 대해 게이바를 언급한 최초의 언론으로 이때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역할을 감당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적극지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교회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논평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감정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과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욕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이연종기자

Contents 2 교단소식 3-5 교계소식 6 신학산책 7-8 신앙과 삶



담임목사 강대석

주 소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3번길 4
 >>> 경인교대 6번출구
 연 락 처 032)544-2341
 F A X 032)543-0182
 홈페이지 www.cwch.org



청운교회는 '자비한 사랑이 있는 교회, 속죄가 있는 교회, 복음의 바닷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고취하는 교회는 모든 이에게 이 시대, 세계, 전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사야 61:1)

청운교회는 VISION 10,100,1000,10000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지교회와 100명의 신도, 1000명의 영혼, 10000명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청운 핵심가치

1. 예배 -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양하는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 전도 - 불신자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3. 성전 -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4. 상호협력 -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5. 영성생활 -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6. 선교 -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7. 헌신 -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8. 순종 -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석장로교회, 김봉임·김송희·김춘자 씨 등 20명의 권사 취임식 거행하고 일꾼 세위

5월 24일 오후3시 30분, 교회설립 36주년 맞아 교회 대예배실에서 약 150여명의 성도들 참석한 가운데 취임감사예배 드려



박근상 목사
신석장로교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일꾼 되어 달라”

신석장로교회(박근상 목사)는 교회 창립 36년을 맞은 5월 24일(주일) 오후3시 30분, 교회 대예배실에서 교회성도들과 축하객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권사취임감사예배에서는 김봉임, 김송희, 김춘자, 박범순, 박지원, 송춘자, 신혜원, 오은주, 유은희, 윤영숙, 이미선, 이종숙, 이화옥, 이효정, 이희장, 장민재, 최성희, 최영심, 한경례, 한금숙 씨 등 모두 20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권사로 취임했다.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 박근상 목사가 현 교회 소재지인 신탄진에서 설립예배를 드린 후 신탄진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



▲ 신임권사들이 박근상 목사 부부와 취임식 순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

뚝 세워 났다.

특히 박 목사는 극동방송과 CBS 등의 기독교 방송매체를 통해 매주 수십 편의 방송설교와 메시지를 전해 전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고 있으며, 유튜브(YouTube) 등 SNS를 통해 매일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박 목사의 메시지를 접하고 있을 정도로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교회설립 36년을 맞이해 드린 취임감사예배였기에 이날 행사의 의미가 성도들에게는 남달랐다.

공교롭게도 이번 권사 취임식은 3월에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비드-19로 인해 미뤄져 교회설립 36주년을 맞은 이날 거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취임감사예배에서는 박근상 목사와 박 목사가 소속된 대전노회 노회장 김종대 목사와 서기 엄범재 목사, 기독교타임즈 대표 오종영 목사, 벨국제아카데미 이홍남

목사, 예장대신총회 서기 김종우 목사, 대전노회 증경노회장 권재천 목사 등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행사 순서를 맡아 기도와 축사, 권면, 축도를 했다.

박근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노회서기 엄범재 목사(이삭교회)의 기도와 신석장로교회 권사중창단의 특별찬양 후 박근상 목사가 예배소서 3:7절을 본문으로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즉 거룩한 사람인 聖人(성인)으로 부르셨으며, ‘부르심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이라며 “우리가 은혜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은혜로



▲ 신석장로교회는 5월 24일(주일) 오후 3시 30분 교회 대예배실에서 150여명의 성도와 내빈 및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사취임예배를 드렸다. © 오종영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인다운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계획)아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권사로 세움 받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에 자신을 권사로 부르신 부름대로 사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받게 됐다”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를 바란다. 일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대로 은혜주시신 만큼 일하는 일꾼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제2부 취임식을 거행했다.



▲ 신석장로교회 권사취임자들이 박근상 담임목사앞에서 취임서약을 하고 있다. © 오종영

박 목사가 집례 하는 가운데 취임자를 호명한 후 취임자와 교인들로부터 서약을 받은 박 목사는 취임기도를 드린 후 김봉임, 김송희, 김춘자 권사 등 20여명의 임직자들이 신석장로교회의 권사가 됐음을 공포한 후 취임자들에게 취임패와 선물을 증정했다. 증정식이 끝난 후에는 취임자들부터 취임자 서약을 받았으며, 취임자들은 “거룩한 직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 목회자의 사역에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평생의 보호자와 동역자로 살아갈 것이며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람으로 섬기는 권사가 될 것”이라고 서약했다.

제3부 축하순서는 축사와 권면, 화환증정 등의 순서를 진행했다.

먼저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대표, 영성교회)와 이홍남 목사(벨국제아카데미 교장)가 축사를 통해 “보기 드문 목

양일념의 정신과 철저한 자기관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박근상 목사님과 함께 신석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권사로 취임 받게 됨을 축하한다”고 축하했으며, 김종우 목사(총회서기, 주하나교회)와 권재천 목사(증경노회장, 영음교회)는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 복음을 위해 진력하며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권사들이 되라”고 권면을 했다.

이어 신석장로교회 유·초등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취임자들에게 축하 꽃다발을 증정하며 권사취임을 축하한 후 김종대 목사(대전노회장, 하늘소망교회)의 축도로 취임감사예배를 마쳤다.

강영철기자

서울동노회 117회기 제1차 임시노회

2020년 6월 6일 오전 11시, 목사후보생가입, 목사가입, 교회가입의 전 처리



▲ 서울동노회가 120명 이상 신임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2일 성황리에 마쳤다.

대신(북원)총회 소속 서울동노회(노회장 강영철목사) 오는 6월 6일(토) 오전 11시 제117회기 제1차 임시노회를 개최한다.

임시노회 주요안건은 ‘목사가입, 교회가입, 목사후보생가입의 건과 장로증원청원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되었다고 하면서 신입 회원가입, 교회가입과 아울러 노회규정에 맞는 노회운영을 하기 위하여 총회와 연계하여 대신(북원)총회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0명 정도 신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또한 노회가운데 임원시찰 상비부서장 수련회등을 통하여 노회 수준과 내용을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117회기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 노회장 강영철목사(참된교회) △ 부노회장 안지범목사(한뜻교회) △ 황철구장로(사랑제일교회) △ 서기 김장호목사(대신교회) △ 부서기이권형목사(아름다운교회) △ 회의록서기이연종목사(한결교회) △ 부회록서기양한영목사(기드온) △ 회계 김희정장로(사랑제일교회)

남양주좋은교회 월산부영아파트계단 개통

화도읍 월산리 소재 부영아파트 울타리가 열려 전도의 문 활짝



좋은교회를 개척건축하고 후임목사에게 계대를 이어주고 새롭게 남양주좋은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는 정동명목사 김향숙사모 수 차례 예배당 건축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는 목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여년 군목사역과 15년 좋은교회목회사역을 다음 사역자에게 계승하



▲ 남양주좋은교회와 교회 앞 부영아파트와 연결하는 계단이 개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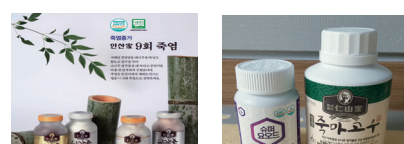
고 건축하는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는 정동명목사(남양주좋은교회 담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가 급변 교회 앞 부영아파트와 연결하는 계단이 개통되었다

강영철기자

변역력-미네랄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 19 매출급증☆



죽염 9회 고체 분말 5회

3회 죽마고우 원장 고추장 죽염수 히트상품



인산의학 월간지

구독신청서 무료보내드립니다.



☆ 목회자 특별할인혜택 ☆

대신교회협동신문

발행인 강대석 대표 최충환 주필 박근상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편집국장 강영철 광고국장 김용백 영업국장 이창복 인쇄인 이병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빛과 소금] 이태원 클럽의 사실과 진실



윤중식
종교기획부장

최근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태원 게이클럽’ 논란이 뜨겁다. 지난 7일 오전 7시22분 국민일보는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송했다. 이 기사는 전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등이 밝힌 ‘용인 66번 확진자’에 대한 보도였다.

부제는 ‘방문한 클럽, 주점 등 이용자 2000명 규모, 지역사회 2차 감염 우려’였다. 파문은 상당히 컸다. 윤·오 프라인 1000여곳의 언론과 외신들도 기사를 받았다. 기사 제목에 ‘게이클럽’을 명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의미조차 불분명한 ‘동성에 혐오’를 앞세워 ‘사실’을 아예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자가 ‘게이클럽’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실(팩트)을 보도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난 기사가 아니다. 사회통념이나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보도도 아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와 동성애 옹호 단체는 ‘코로나19마저 악용,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등을 주장하며 동성애자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게이(gay)’는 원래 명량한, 쾌활한 등의 긍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다. 1960년대 미국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런데 국내에선 동성애자에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라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다.

이 준칙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규정을 뒤 언론 보도를 규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침해이고 과잉 통제가 아닐까.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정부나 질병관리본부, 각 언론은 장소와 특정 단체(교회 포함) 동선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해 왔다. 동선을 밝히지 않고 싶어하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민 건강, 사회 질서, 안전이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유독 동성애자(단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려 하는지 의문이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객관적인 사실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이고, 공익 보도이다. 이것은 혐오나 차별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보건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다. 동성애자 활동 패턴을 알아야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세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면 언제든 신천지 대구집단과 같은 초대형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종교시설처럼 일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국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터지고 말았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공포에 떨고 있는데, 멀리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수천 명이 서울 이태원으로 몰려들었다. 이 시국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클럽, ‘술방개’ 주점 등 밀폐 공간에서 머문 게 문제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12일부터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진실은 보도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21일 현재 3만2000여명)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인권보도 준칙이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특권층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올렸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다수 국민의 생각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과연 진정한 ‘인권’인가. 가정의 소중함과 부부 사랑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에게는 물론이 들 뿐이다.

윤중식 종교기획부장

김승규 장로 “기독교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입후보했던 이유는...”

김승규 장로가 20일 “한국교회에 드리는 감사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21일자 국민일보에 광고로 게재한 이 글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기독교 정신, 그리고 미국과의 강한 동맹의 터 위에 세워졌다”며 “그리고 온 국민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계가 본받을 만한 강한 국가로 우뚝 서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문화막시즘의 강한 도전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막시즘은 변형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라며 “가정과 도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확실하게 완성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 같은 사상이 동성애, 섹

스혁명, 마르크스적 페미니즘, 젠더이데올로기, 다문화주의 등이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웃기고 우리 사회와 심지어는 신학교와 교회에까지 침투하여 날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정부와 집권당은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을 위협하는 많은 법률과 조례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번 총선에 기독교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로 입후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들과 목회자 교역자 성도님들께 감사와 더불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예배 참석 시 ‘QR코드’ 의무화 검토에 교계 우려 고위험시설은 10일부터... 교회 등은 시범 운영 후 결정



▲정부가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 시스템을 들고 나왔다. ©픽사베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일명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31일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책임자가 모인 자리에서 ‘감염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목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도서관, 영화관 등을 비롯해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단란주점(클럽, 룸살롱)·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음식점 등 8개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이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

외의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판단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방문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석을 확인한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다중이용시설과 QR코드 발급회사,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인 식별 정보를 방역당국이 확인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교회는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이미 QR코드를 사용했던 교회들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이미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여러 차례 마찰을 겪었던 기독교계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배 통한 확진자 드물어... QR코드 도입 필요성 의문”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민첩하게 신기술로 대응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



▲자체적으로 이미 QR코드를 사용해온 교회들도 있다. ©열린교회 제공

한 영역, 특별히 개인정보를 정부가 소지하게 되는 것은, 자칫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인 국민의 주권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의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국가의 권력은 작아지고 국민의 권력이 확대되는 게 이상적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각 개인과 기업, 사회의 구성단체가 자율권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 발생에 대해선 “그동안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상당히 조심해 왔다. 교회들의 규모에 비해 이 정도라면 상당히 노력한 것이다. 소규모 발생한 것으로 교회 전체를 표적 삼아 누명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상 돌발적인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고쳐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경기도 측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자체적으로 QR코드를 도입했다. 신원 조화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확진자 출석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늘 이야기해 왔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에 앞서 그 누구보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QR코드는 교회에) 강요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정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왔던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도 “교회는 아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 아직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에 QR코드 도입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경호 기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에 ‘반동성애 탄압 STOP’ 챌린지 진행

"침묵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 등 문구 내세워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가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것에 대한 규탄 챌린지 ‘반동성애 탄압 STOP’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진행 중이다.

챌린지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마스크에 ‘지퍼’ 이미지의 스티커를 붙이고 “표현의 자유, 반동성애 탄압 STOP”, “동성애 반대한 교수들 성희롱으로 해임! 침묵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문구와 함께, “표현의 자유, 반동성애 탄압 STOP” 문구를 들고 있는 교수를 성희롱으로 해임, 침묵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피켓을 들었다. 또 해시태그로 #총신대_표현의 자유 #총신대_교

수해임 등을 덧붙였다.

총신대보사, 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 등에 따르면 총신대는 지난해 10월 4일 ‘르’ 교수로 인해 성희롱 사태가 공론화됐다. 이들에 따르면 ‘르’ 교수는 “길거리 화장하면 매춘행위”라는 발언을 했다. 이밖에도 ‘그’ 교수의 “영계”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르’ 교수나 ‘그’ 교수가 아닌 ‘생명과학과 생명 윤리’ 강의를 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교내 대자보에서 ‘오’ 교수로 소개된 이상원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및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강의에서 의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동성 간 성관계가 정상이 아님을 강의했다.

당시 이 교수는 “동성 간에 느끼는 성욕은 선천적으로 주어졌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남성 전립선과 남성 항문근육의 거리에 따른 성감의 상관관계와 습관의 형성에 대해 설명했고, “항문근육은 그 막이 쉽게 찢어질

수 있으며, 항문근육 주위에 혈관이 모여 있어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쉬우며, 항문은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의 성기는 관계를 하기에 적합하도록 매우 탄력이 있고 잘 만들어져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로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동성 간의 성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성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 측은 △교원은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성적 정체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시대가 요구하는 건전한 성 인식에 토대하여 강의에 임하지 않고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름 △총신대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의 사유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총신대를 규탄하는 성명이 각계에서 발표됐고,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총신대에 자녀 보내지 않기 운동, 후원금 끊기 운동, 총회 항의 운동 등을 예고했다.

김신의 기자

하남 몽골교회 설립 4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지난 24일 오후 4시, 50여명 모여



▲ 하남몽골교회 설립4주년 기념감사예배 단체사진

요한복음 9장, 주님은 실로암못에서 나 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을 보게 고 쳐주시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 등은 폭 력과 시비로 일관되게 예수님을 공격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 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끝까지 건디는 일로 예수님은 바리새 인 등을 기다리신다.

끝까지 건디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남 몽골교회(담임 우인식목사)는 지난 24 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이날 4주년 설립 기념감사예배로 이방인 몽골 성도 약 15명정도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사 역을 하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우인식목사의 인도로 박사랑열린공동체 박희돈 목사의 기도 서울동노회장 참된교회 강영철목사가 사도행전 14장

본문으로 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다음 안식일 에도 하나님은 주인이며 예수가 하나 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하남 몽골교 회는 계속 선포되어왔고 이후로도 계 속선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전 했다.

한편 하남몽골교회 우인식목사는 "하 남몽골교회는 하남외국인지원센터로 2003년 당시 하남교회 장로서 이 사 역을 시작했다. 또한 그간 20년을 지나 면서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하고 외면 하려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나중엔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임직을 받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사역을 시작 하면서 2016년도에 서울동노회에서 설 립예배를 드렸다고 전하면서 인도하시 고 여기까지 끝까지 일을 하시는 주님 의 은혜였다."고 말한다.

이연종기자

열린문교회 예배당수리 감사예배 드려

지난 31일 오후 7시30분, 100여명모여



▲ 열린문교회 예배당 수리로 제 2부흥의 기회를 마련했다.

제2기 사역을 준비하며 예배당을 수 리하고 감사예배를 지난 31일 인천 시 연수구에서 위치한 열린문교회(담임 이창복목사)에서 하나님께 영 광을 드렸다.

먼저 1부 예배인도 이창복목사(열 리문교회 담임), 기도 최종환목사(송천교회 담임), 성경봉독 김용백목 사가 계시록12장7~12절, 특송 박중 현목사, 설교는 '영적전쟁에서 승리 하라'는 제목으로 김옥규목사가 전 했다.

김 목사는 "성전수리후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로 총만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고 선포했 다. 이어 헌금기도 김구원장로, 축사 정종현목사, 이창진목사 격려사 서 울동노회장 강영철목사가 전했다.

이연종기자

이어 담임 이창복목사가 광고를 전 한 후 권오준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열린문교회와 이창복목사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귀한 복음사역, 특히 주안역 전도는 10여년 동안 감 당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회기까지 백석총회 평서 노회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서울동 노회로 이명하여 이번 예배당 수리 와 함께 제 2의 부흥의 기회를 가 지고 있다.

이창복 목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 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특 별히 귀한 서울동노회 가입하게 되 어 감사하며 더욱 더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통일 예수한 국을 열심히 이루겠다."고 전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30회 동교회 소집 안내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솔뜨락 카페



▲ 지난 1월 주향교회에서 동기회를 가졌다

황성욱 목사(주님손교회)는 사랑하는 30회 동기 여러분! 모든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찬송의 손길 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란 모든 존재와 인생과 삶의 정체성은 예수 그 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영 광과 찬송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30회 동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여 러분들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 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어야 했는데 우리 가 연약하고 부족한 탓에 옳은 말(분명 한 말)로 교회와 하나님과 목회자와 관 계에서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 았나! 깊은 자성과 회개를 합니다. 죄 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전하였다.

2000년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

학하여 청파동 고개길을 마지막으로 3 년동안 등하고 했던 75명의 동기, 지금 은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맡겨진 사명 을 감당하고 있다.

어느 동기회처럼 잘 만나고 모임을 가 지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힘든시기 는 부인할 수 없다. 이 때에 2020년 상 반기 동기회 모임을 알려왔다.

"2020년 상반기 동기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 기님들을 모시고 등산과 식사로 심신 의 회복을 위해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모이지 않 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시고 가벼운 등산으로 운동하시고 맛있는 음식과 대화를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일시:6월9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솔뜨락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있는사람이 되라”

지난 5월15일 스승의날(교사는 많은데 스승이 아쉬운시대) 18일 성년의날(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갖어라)

5월 15일 스승의날, 교육은 가공되 지 않은 원석을 갈고 닦아 보석의 인 재를 만드는 일이다. 학생 한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발굴하므로써 원 석같은 학생을 보석처럼 빛나는 전 문직업인으로 양성하는 학교가 되 어야한다.

옛날에 앞을 못보는 장님 제자가 스승의 집에서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스승이 제자의 손에 등불을 쥐어주 었다.

스승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장 님 제자가 묻자 '등불이란다' 하고 스승이 대답을 했다. '아니 스승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 하니 '자네가 앞을 밝혀보라고 주는 등불이 아니라 어두운 밤길에 맞은 편에서 오는 사람이 자네가 들고있 는 등불을 보고 자네와 부딪히지 말 고 피해가라고 주는걸세' 하면서 스 승이 제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제 자를 사랑하는 스승의 심사는 제자 가 가는길까지도 살피는 것이 스승 의 역할이며 담당이라면 가르침이 란 공식적인 학문이나 이론적인 지 식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우러나오 는 인간성과 그 미덕인것이며 또한 남을 배려해서 나 자신의 체체를 바 로하는것이다.

요즘, 선생님들 중에는 이른바 인 간주의 교육은 사라지고 단순한 지 식전달이고 과학기술 습득외에 오 직 주지주의 의 교육만이 능사이며 실용주의 교육만을 믿는데서 비롯 된 발상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교사는 많지만 스승이 아쉬운 시대라 하 겠으니 스승이란 단순한 지식전달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않았 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스승의 존경론 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선생님의 존재를 크게 받들던 때였다. 그때엔 그만큼 스승이 학식뿐만이 아니라 인격도 갖추었 고 인간성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다. 요즘처럼 선생님이 교권을 앞세우 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사도를 지키는데 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따르면서 존 경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 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므로서 교육 의 그 과정에서 지식과 과학은 전달되 었지만 소중한 인간교육은 잃어가고 있 다.

그러기에 많은 지식들이 오늘날을 가 리켜 교육위기라고 까지 하고 있다.

미국교육이 자유방임, 흥미본위로 내 던졌던 결과로 알찬 인간을 길러내는 데엔 실패했다고 미 교육잡언위에서 지 적하면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편중으 서 자율학습 창의성을 나았다고 경고하 며 교육개혁의 필연성과 방향을 제시 하였던 것이다. 이에대해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이런 스승을 원한다면서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력을 가르치고 그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 로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되어 야한다했다.

그결과 학생들은 교과서나 노트만을 외우다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력이나 지혜는 갖추어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분별한 행동을 저지르 게되는 결과를 낳고만다. 오늘날 사회 문제로 까지 심각하게 대두되는 불량학 생과 청소년은 오늘날 임시 위주의 교 육을 하는 학교교육에도 그 책임이 없 다고는 단언 못할 것이다. 이는 앞서 칸

트가 말한 오늘날 학교 전체가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반성케해주는 말 이다.

1871년, 독일국민들은 프랑스를 점령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 몽테계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때에 몽테계는 이렇 게 말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국민들 의 공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들의 공로 다. 이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자라했 다. 국민교육이 이렇게 어린이의 마음에서 어떤 사상, 어떤관습을 길러주는가가 국력의 결정요소이다. 국민교육과 국가 관 인간관이 왜 중요한지 또 교사양성기 관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생각할 것 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교육은 호박넙글 떼어놓기와 같 다. 방향을 잡아주는대로 뻗어나가기 때 문이다.

5월 18일 성년의날, 젊은이들이여 야망 을 갖어라. 아프리카의 친구였던 슈바이 처 박사는 21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 해 공부하고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 돕기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검은대륙 아 프리카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구원 하는데 크게 공헌했던 것이다.

파스칼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 다. 이말은 너무도 익히 알려져 있는 말 이다. 즉,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했으 니 생각하는데서 과학도 철학도 문학도 신학도 그 모두를 할수있는것이며 또한 생각하는데서 출세도 하며 부자도 되며 아름다운 꿈도 실현할수있다고했다.

그러기에 섹스피어도, 만일 생각하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면 하루아침 에 천막이 궁궐로 바뀌고 거지가 제왕으 로 바뀔다했다.

중국 지도자들의 교훈에서 보면,

1.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마라 정기스

칸은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마라, 나 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목숨을 연명 했고 목숨을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 이였다. 작은나라에서 태어났다면하지 마라. 그림자라고 친구도 없고 병사만 10만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 쳐 200만도 되지않았다. 배운게 없다고 힘이었다고 탓하지마라, 나는 내이름을 쓸쓸물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리 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망 막하다고 해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몸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 렸다. 이를 복구하는 순간 나는 정기스 칸이 되었다(정기스칸의 시)

2. 중국총리 주은래는, 보수자리에 대 한 욕심으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지 마라. 중국총리 주은래 1935년 준의회 에서 모택동을 모시고 만리장성을 시 작할때부터 죽는날까지 41년간 공산당 초기에 톱스타코스를 밟던 내가 가난 한 농부에 아들 모택동을 중국 혁명지 도자로 추천하고 나 스스로를 낮췄던 것은 그에게 인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총리시절 행정보고때 모택동 주석의 침상옆에 꿰어 앉아야했고 방광암수술 을 받고 싶어도 모 주석의 허락이 없 어 2년간 미루었다. 나는 사망의 순간 에도 다 죽어가는 나 따위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환자 동지들을 돌봐주십시 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중국총 리주은래)

3. 주나라 강태공의 글에서, 운도 지질 이 없는놈이라고 지주하면서 하늘의 무심함을 탓하지마라, 내가 수년간 낚 시를 베풀며 때를 기다리는 동안 조강

지처마저 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지 만 백발이 되고나서야 문왕서백을 만 나 은나라 주왕을 멸하고, 주나라를 세 웠다. 나는 결코 하늘을 원망하거나 포 기하지 않고 그인내의 결실로 천하를 얻을수가 있었다.(주나라 강태공)

4. 한나라 한신장군 그래서, 용모가 볼 품없어서 되는일이 없다고 꾸짖었지만 라 나는 어릴 때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불랑배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치 욕을 당했고 빨래터 노파의 밥을 벌여 먹기도 했다. 초패왕 항우는, 나를 볼품 없는 용모를 없신여겨 10년간 말단직 직급랑 자리에 맴돌게도 했다.

항우에 실망하고 우방밀으로 들어가 서 천하를 유방에게 안겨줄때까지 온 갖수모를 견뎌냈다. 나는 천하 운병의 뜻을 갖추고 뭇사람들의 야유와 모욕 을 참아내며 기어코 중국 최고 명장이 되었다.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혀 치욕을 당했 다고 삶을 포기하지마라(한신나라 한 신장군)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며 출 세하길 원하기에 그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다름질 하고 있다. 그러나 막 상 무엇이 성공이냐고 묻는다면 한마 디로 대답하기가 망설여진다. 각자의 목표가 다르고 성공의 개념이 다르고 희망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 디로 대답하기가 어렵다.

아인슈타인이, 한 제자로부터 이런 질 문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크게 성공할수있겠습니까? 대답하기 를,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말고 가치있 는 사람이 되라고했다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완 전할 수가 없다. 어느 부분에 성공한 측 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부분에는 실

패한 측면이 있거나 부족한 측면 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돈버는데는 크게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는 경 우가 있고, 어떤사람은 사회적으 로는 큰 명성과 직위를 갖었지만 가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사람은 학문으로는 크게 성 취했지만 자녀교육에 실패한 사 람도 있다. 또, 어떤사람은 건강하 고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반 면에 도덕적으로 실패해서 감옥 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참 존경스럽고 흠모 할 만 하고 모든면에서 부족함이 없 는 듯이 보이는 그런사람 일지라 도 그 사람의 내면 그사람의 가정 을 들여다보면 남에게 차마 말못 할 어떤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다. 자랑스럽고 즐거운 문제보다 어 느 한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고민을 하고 개인이 고통당하고 그 직장이 고 통당하기 때문이다. 이런데서 오 는 피곤과 지침이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 고 허물이 있고 괴로운 부분이 있 다. 다른 것은 관왕은데 바로 이 런 괴로운 부분 때문에 고단한 것 이다.

이와같이 인간은 피곤하게 만드 는 경쟁의식, 적대감, 갈등에서 나 오는 고민, 그리고 부족함점에서 나오는 불완전함점에 오는 괴로 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수있 겠는가,

새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사람이 되길 바라 는 바이다. 이인수목사

칼럼



〈김영규 목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소장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미국화학학회(ACS) 초청회원

“찬송 개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와야”

넓은 잔디에 유실수들이 많이 둘러 있는 기숙사에서 상쾌한 이른 아침에 창가에서 새벽잠을 깨우는 새소리들은 그렇게 기쁠 수 없다.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울창한 전나무 숲 속에서 깊이 숨쉬면서 맑은 냄새도 그 자체로 상쾌하다. 역시 산봉우리 가까이 기술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역시 땀이 약간 젖은 피부에 그렇게 시원할 수 없다.

여전히 신비에 쌓인 감각 기능들

그렇게 기쁘고 상쾌하며 시원한 느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뇌의 가장 신비한 부분이다. 즉 시각피질, 청각피질, 후각피질, 미각피질 등 뇌 피질에 있어서 6층 중 특별한 층에 감각기관들로부터 마지막 도달한 외부 정보들이 다시 뇌의 다른 영역들의 세포들에게 전달되면서 마지막 뿌려주는 그 정보단위들이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칼럼의 글에서 그런 비약적 경계선은 광자가 절대속도의 공간인 전자를 생산할 때 열리는 전자기력의 두 차원들과 전혀 다른 어떤 차원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경계선일 수 있고, 아니면 육체보다 먼저 창조된 영혼이 보거나 느끼기 위해서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들을 만들고 성장한 뇌의 이런 영역으로부터 외부정보들이 모여져 물질세계들의 힘의 입자들이 펼치는 차원들과 다른 차원들을 여는 영혼의 세계의 특별한 정보들로 저장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가설도 해본 적이 있다. 그런 특별한 정보이동 이외에 물질세계의 정보들인 고 단백질(장기 기억물질)로 저장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 영역의 뇌 세포들이 전기적 충격이나 암 및 다른 상처로 인하여 손

인간의 감각과 찬송의 자세

상을 입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냄새나 맛을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소리도 청각피질에 도달하여 갑자기 비약적 정보방식으로 상영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영역에서 자연의 소리나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아닌 악기들의 조화로운 소리도 인간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준다. 문제는 말들이 그 대응된 표상들을 재현하면서 감동을 일으키는 신비로운 조화만큼이나 여러 악기들의 아름다운 조화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는가이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다윗의 시편들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들을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다른 그림자들의 경우와 같이 영적 예배와 관련된 지식에 있어서 약하고 초보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적 훈련을 위해서 스스로 즐거워하도록 그들에게 옛날 명하였던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promiscue) 우리에게 도입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개인적 악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공적인 예배에 악기들의 사용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근거하여 성령의 명백한 명령에 의해서(manifesto spiritus sancti edicto) 사

라졌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주의자들이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악기 사용을 도입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칼빈은 비판하였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성호란 분절된 소리에 의해서(articulata voce) 혹은 알려진 언어로(lingua cognita) 찬양되어야 하는 것이 고유한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순한 형태가 추천되었기 때문에, 오직 공허한 소리로 귀를 가득 채우는 것에 불과한 옛 노래(cantillatio)로도 노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간의 영혼을 자극하는데 음악이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확실히(quidem) 인정하였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예배를 오염시키는 조그만 부패를 살피시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미신에 매이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여기에서 칼빈은 그렇게 판단할만한 기준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인간의 소리는 확실히 대중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죽은 모든 기구들보다(mortuis omnibus organis) 뛰어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서 죽은 모든 기구

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죽은’이란 표현 때문에 모든 감각기관들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근거하여 최소한 그가 모든 악기들을 의식하고 쓴 표현이라고 사려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이 그렇다고 해서 말의 분절된 소리에 대해서만 관심하고 거기에 어떤 리듬을 넣는 것을 반대하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칼빈에 따르면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은 멸시될 수 없지만, 마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깊은 감정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가지나 유익이 없다고 불뿐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의 지체들에 의해서 빛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들의 영적 의미들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보다 우리의 귀가 멜로디에 더 이상 관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즉 그런 절제만 있다면 노래하는 것은 가장 기록하고 환영할만한 습관(sanctissimum ac saluberrimum institutum)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감미로움과 다만 귀의 즐거움을 위해서 작곡된 그런 노래들은 높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로부터 칼빈이 강조한 점

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주후 3세기 초 이후가 아닌 필체로 된 가장 오래된 교회 찬송가의 악보도 현재도 남아있는 주전 3세기 헬라시대의 악보 방식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악보는 시편송도 아닌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경배송이다. 그렇다면 지금 칼빈이나 우르시누스 및 나스와 같은 인물들의 규범적 원리에 따라 시편송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절대 음정으로 잘 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자연과 악기들의 조화로운 아름다운 소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식에 맞는 수많은 기록한 멜로디의 발견이 이루어질 때, 찬송가에 대한 개혁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찬송가에서 하나님 속성 찬양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한 멜로디도 인간에게만 감동을 주는 멜로디일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은택으로 취득하는 감동이 아마 더 아름답고 거룩한 멜로디일 수 있다.

기고



윤대영목사
부천제일교회

해가 질 무렵 앞산 고개를 넘어오는 손님이 보였다. 누구네 집에 오시는 손님일까? 궁금했다. 그런데 그날 밤 손님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다음날 용소(龍沼)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하얀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었다. 용소 바위에 흰 고무신을 벗어 놓은 채 물속에 몸을 던진 것 같다. 검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 물 위에 뜨고, 흰 저고리와 치마는 한의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남긴 자그마한 보따리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부모님 전상서’란 인사말로 시작된 서연은 이러하였다.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일본 순사에게 잡혀간 후 오늘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는 도저히 전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가문의 불명예를 안고 온 여식이 결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고향집 찌리문에서 초롱불 켜진 안방과 사랑방과 부엌문만 쳐다보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여기 명(命)을 끊는다고 쓰였다. 그리고 부모님께 간절히 용서를 비는 글이 담겨 있었다. 열여덟 집정도 되는 집성촌에 대대로 양반의 도리를 지켜오며 살던 집안의 딸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별의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짐작하기는 정신대에 끌려갔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집안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속 앓이만 하고 있었고, 이웃이 알지 못하는 제삿날이 있었다. 딸 생일날을 정해 십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한 사람의 목숨과 일생은 어느 때나 동일하다.

언제부터인가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

왜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시게 하는가?

심지어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아예 여성은 보지도 말고, 말도 받아 주지도 받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당부를 할 정도가 되었다. 성범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체 온 매스컴이 함께 하나가 되어 성범죄에 대한 매도가 시작되면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나이, 신분이 어떠하든지 이 사회에서 퇴출하는 마는 것이다. 그런데 양가집 딸로 태어나 곁에 자라다가 왜놈의 순사에게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겨지는 그 날 밤부터 앞마당 찌리문을 닫지 못하고 집 떠난 딸을 가슴에 안고 부모들은 처참한 삶을 살았고, 나랏님 제대로 못 만나 나라가 빼앗긴 비참함을 당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갑자기 자신까지 열이 오르고 만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그 당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갔던 딸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서 타향에서 숨어 살다가 자신의 억울한 과거를 염보로 쓸어안고 평생을 숨죽이고 산 할머니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어느 때 부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와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가 생겨났다.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모임을 하고, 평화 여성상을 조각하여 세계 도처까지 세운다고 했다. 모두가 느낀 느낌은 아니지만 주관적으로는 하필 왜 저 할머니들을 배일과 보상의 자리에 세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은 모두가 공통된 자존심이 있다. 자기의 초상을 내세워 정치적 그리고 국제적 분쟁에 이용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은 잘 못함이 전혀 없이 감압적인 피해자이지만, 굶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 내어 항변과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흔쾌히 허락할 리가 없다. 그런데 용기 있고, 담대하신 할머니 여러분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짐짓 놀랐다. 그리고 내심 다른 대일청구권도 무수히 많고, 일본에 대한 보상받을 것도 많을 텐데 한국 여성의 자존심을 위해서라

도 감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할머니들이 제2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보고 자발적 항거는 누구도 막을 수도 없었다. 대일청구권이 고(故) 김종필 국무총리가 앞세워 박정희 군사 정권 때 끝났다는 생각만하고 있었던 보통의 국민들은 이웃나라와 원수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웃나라보다 더 잘 살고 인류 역사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한국 산업의 가마우치식 경제 체제를 55년간 겪으면서 우리에게겐 부러웠던 일본의 우수한 기업을 누르고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된 기업이 생겨나면서 일본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부푼 즈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원치 않는 사안이 다시 회자되고 보니 오히려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다.

누가 당신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란 이름을 지으라 했는가?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소위 NGO활동을 하라고 했는가? 스스로 한 일이다. 처음엔 착각이란 해보였다. 그러나 한 할머니의 불편한 심경을 기자 회견까지 하게 되었다. 사정은 어땠든지 할머니들의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지 않다. 다만 듯한 민주라는 이름, 인권을 빙자, 노동이라든가 핏발 아래서의 집단 이기주의가 물리적 행위와 정치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집단행위로 밝혀졌다. 벌써 여당과 정치권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처럼 진영이 나누어지고 진일파까지 거론한다.

할머니들을 더는 욕되게 하지 말라. 제2의 정신적 정신대로 물지 말라. 할머니가 스스로 보상 말씀을 하시게 해서 안된다. 국제사회 앞에 우리 조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수치스럽다.

개혁교회를 위한 신조연구

성경의 바른 이해와 이단분별을 위한 신앙고백서의 필요성



강영철목사
참된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신앙의 전통은 교단헌법 1장 1항(서언)에서 성경의 영감론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삼는 다라고 함께 고백하듯이 성경과 신조를 동시에 고백하는 신앙을 말한다.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에 기초하여 성경의 핵심적 요약을 미리 교육하고 이 토대 위에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깨닫게 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모든 신학적 기초를 사도신조에 두었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성경번역과 사도신조,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초로 하는 교리문답서를 발간하여 신앙교육에 힘썼다. 이처럼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 신앙의 전통은 성경과 신조를 함께 지켜가는 것이다.

햇지(A. A. Hodge)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서론에서 이단들이 모든 기회에 나타나서, 성경을 곡해하며, 말씀의 어떤 부분을 과장하고 다른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위협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중요한 교리를 정확히 정리해서 잘못된 것을 밝히고, 모든 거짓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신조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전체 내용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잘 정리함으로서 말씀의 어떤 부분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또는 제거되거

나, 과장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조(신앙고백서, 교리문답)의 가치이다.

칼빈(J. Calvin)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교육이 없이 유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말했다. 그는 영국의 한 성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리문답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튼튼히 서 있는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아주 인상 깊게 이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염려하고 돌보시오”, 또한 제네바에서 국회에 제출한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제의서’와 제네바 교리문답(1542) 서문에서는 교리문답 교육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성경적 교회의 확립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성경의 순수함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신앙고백(catechism)을 가르치게 하여 저들로 믿는 내용을 깨닫게 함이 극히 필요하니, 이와 같이 함으로서 참된 성경적 내용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보존될 것이며 또한 각 사람에게 혹은 대대로 전파 될 것이다. ... 우리가 제안하려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 신앙의 간결하고도 단순한 요약을 작성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1년의 일정한 날에 목사 앞에 나와 문답을 하고 시험을 받고 또한 각자의 능력을 따라 저들이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이르는 것이다(제의서)

교회는 언제나 아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다. ...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교리문답(catechism)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규칙을 사용하였다. 사탄은 자신이 교회를 흠여서 가공할 만한 패괴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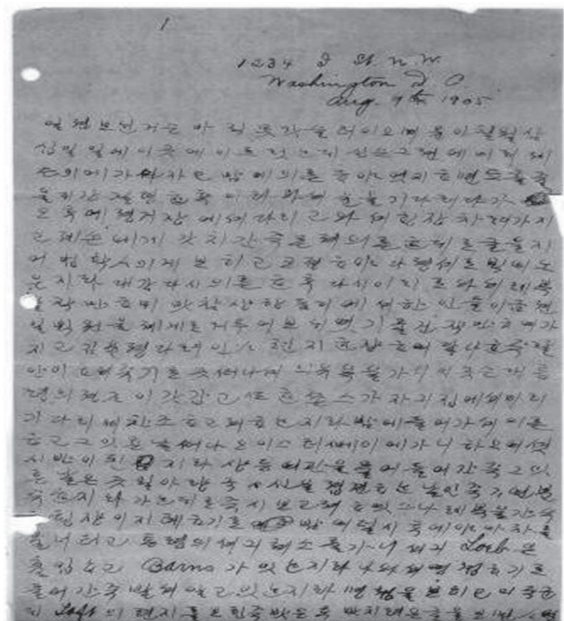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징표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자 사탄은 이런 거룩한 질서를(교리문답) 붕괴시켰다. 따라서 사탄이 남겨 놓은 것은 변화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미신만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몇 가지 유품들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내적인 힘은 없고 외적인 종교적 모습만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확실한 원인이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요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전통적인 것이다(교리문답서).

이와 같이 개혁교회는 성경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신조를 신앙교육의 기틀로 마련했다. 또한 신조의 확립은 바른 성경교육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하나로 통일 시켜주었다. 성경해석의 수많은 가능성은 항상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다. 올바른 해석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짐으로써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나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의 분쟁 원인도 성경해석의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대교회와 전 교회가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므로 바른 성경해석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이다.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는 개혁교회가 고백하고 지켜왔던 신앙고백서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각각의 신조들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 글에서는 초대신조와 종교개혁신조를 중심으로 개혁교회의 신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재]이승만 시대(8) 루즈벨트 만나고...민영환 자결에 사흘 울다

‘문호개방’ 정책의 존 헤이 국무장관을 면담

이승만이 탄 대륙횡단 열차는 로스 앤젤레스를 떠나 샌타페를 거쳐 시카고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동부로 가는 기차를 바꾸어 타고, 1904년 12월 31일 밤 워싱턴 역에 도착했다. 남은 돈은 몇 달뿐이었다. 싸구려 호텔에서 자고 다음 날, 이승만은 워싱턴의 아이오와 서클에 있는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았다. 공사관에는 이미 서울의 민영환으로부터 이승만을 도우라는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 이승만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회견 후 8월 9일에 민영환 앞으로 보낸 한글 편지. 루즈벨트 면담 내용과 '독립유지정원' 실패 경위를 담고 있다. 이승만이 한글로 가로쓰기한 편지가 색다르다.

이승만은 하원 의원인 후 دن스모어를 찾았다. 그는 서울 주재 미국 공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아는 사이였다.

دن스모어 의원은 존 헤이 국무장관과의 면담 주선을 약속했다. 존 헤이 국무장관은 문호개방(門戶開放)정책을 내세워 열강의 중국 분

할을 막아 낸 것으로 유명해진 인물이었다. 면담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승만은 1905년 1월 15일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일본이 조선 왕국을 침략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그의 영어는 미국 신문기자들을 상대할 정도로 능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존 헤이 국무장관이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면담은 1905년 2월 20일에 가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그날 이승만은 دن스모어 의원과 함께 국무장관실에서 존 헤이와 30분 이상 만났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존 헤이 국무장관은 한국 선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승만은 그의 문호개방 원칙을 한국에도 적용해 독립을 보존해 주도록 요청했고, 존 헤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쁨에 찬 이승만은 본국의 민영환과 한규설 앞으로 자세한 면담 보고서를 보냈다. دن스모어 하원의원도 이승만의 보고서 사본을 서울 주재 미국 공사에게 보냈다. 그러나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어 존 헤이 장관이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 30세 이승만이 고종 일사로 만난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그가 이승만을 만난 8월 5일은 육종장관 태프트를 시켜 일본과 '태프트-가쓰라 밀약'(7월 29일)을 맺고 한국-필리핀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1주일 후였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짧은 면담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포츠머스 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인 1905년 6월, 미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가 하와이에 잠시 들렀다. 그는 친선 사절단을 이끌고 동양 순방을 떠나는 길이었다. 일행 가운데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과 사위도 있었다.

하와이 교민들은 한인들의 독립 보존 의지를 태프트에게 전달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윤병구 목사의 주도로 대대적인 환영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는 1882년의 한-미수호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라 미국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4천명 하와이 교민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하와이 감리교 선교회의 존 와드먼 목사는 한인 대표인 이승만과 윤병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태프트 장관의 소개장을 얻어냈다.



▲ 이승만의 <하바드 앨범>에 들어있는 루즈벨트 행정부의 육종장관 태프트. 태프트가 제27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1908)의 모습이다.

윤병구 목사는 그 소개장과 한인들의 청원서를 가지고 이승만이 기다리고 있는 워싱턴으로 갔다. 두 사람은 필라델피아로 가서 서재필과 함께 청원서를 다듬었다. 그때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뉴욕 시 동쪽 롱아일랜드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별장 사가모 힐에 가 있었다. 그래서 1905년 8월 4일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뉴욕을 거쳐 그 곳으로 갔다.

그리고는 대통령 비서에게 청원서와 소개장을 전달했다. 회답이 오려 결릴지 모른다는 비서의 말에 풀이 죽어 호텔로 돌아왔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날 저녁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정각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기뻐하는 두 사람을 미국인 기자들이 호텔로 찾아와 축하해주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외교관 정장을 빌려 입고 사가모 힐에 도착했다. 그들이 막 점심술 안내되었을 때, 밖에는 포츠머스 회담에 참석할 러시아 대표단의 위대 백작 일행이 마차를 타고 도착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 대표단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승만과 윤병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한인들의 청원서를 훑어보고 나서는, 그것을 워싱턴의 대한제국 공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미 국무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친절에 감동한 두 사람은 흥분과 희망에 들떠 호텔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기자들에게 에워싸여 축하를 받았다.

워싱턴의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가기 위해 두 사람은 서둘러 기차역으로 갔다. 흥분한 나머지 숙박료로 20달러의 큰돈을 내고 거스름 돈도 잊었기 때문에 호텔 직원이 돌려주기 위해 기차역까지 쫓아오는 일까지 일어났다.



▲ 1905년 8월 5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때 이승만의 외교관 정장 모습.

이역만리서 충정공 민영환의 죽음을 슬퍼하다

두 사람은 뉴욕을 거쳐 다음 날 이른 아침 워싱턴에 도착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신들에 관한 기사가 난 것을 보면서 힘이 솟았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서둘러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갔다.

그러나 공사 김윤정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서울로부터 훈령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청원서를 미 국무부에 보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느 사이 그는 대한제국의 멸망을 예상하고 이미 일본 공사관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두 사람은 정오까지 그를 붙들고 설득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김윤정은 문도 열지 않는 채,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면 쫓아버리라고 흑인 경비원에게 명령했다. 낙담한 두 사람은 문 밖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제국은 일본이 강요한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지 얼마 지난 1905년 9월 10일 이승만은 서울의 민영환으로부터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편지와 함께 활동비 300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두 달 후인 11월에 민영환이 일본의 만행에 분개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승만은 사흘 동안을 울었다.

주미공사 김윤정은 일본에 대한 협조 대가로 나중에 전라북도 지사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분노한 교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몰래 귀국해야 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 강제

로 합병되었다.



이주영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공동대표

저자 이주영(李柱郢):

건국대 명예교수. 뉴데일리 이승만 연구소 공동대표.

1942 평북 용천 출생. 인천중-제물포고 졸업
서울대-서강대-하와이대 사학과 수학
프린스턴대-콜럼비아대 사학과에서 연구

역사학회-한국 아메리카학회 회장 역임

건국대 사학과 교수, 부총장, 대학원장 역임

주요저서: 미국의 좌파와 우파/ 미국사/ 미국현대사의 흐름/ 빼앗긴 서양문명의 역사/ 빼앗긴 우리역사 되찾기/ 한국현대사 이해/ 우남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교회 부흥의 역사 되새겨 은혜·축복·회복의 토양 만들어야

김두현 목사의 이것이 목회 본질이다



김두현목사
21C목회연구소 소장,



▲ 21C목회연구소가 지난 19일 경남 거제 교현교회에서 ‘2020 경남지역 목회계획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21C목회연구소 제공

이나 지역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주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임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 참으로 은혜받기가 쉽지 않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예배와 집회는 보기 드물다. 예배나 부흥회, 집회를 열어도 잘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축복의 시대도 있었다. 한국교회를 지탱해오던 믿음은 ‘순종’이었다.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주의 종을 섬

기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농사를 짓던 시절 땅에서 나오는 첫 열매는 무엇이든 먼저 목회자에게 대접했고, 모든 성도가 성미를 드리고, 목사님 생일이 되면 잔치를 했다. 추수감사절이면 강단에는 손수 준비한 쌀가마니가 수북이 쌓였고, 1년 내내 어려운 재정이 채워지곤 했다.

그야말로 신명기 28장 5~6절 말씀처럼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는, 복에 복을 받는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는 순종이 마르고 있다. 주의 종을 섬기고 대접하는 순종의 믿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입을 열면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만 나오는 것이다. 순종할 때 기쁨과 복이 임한다.

한국교회에는 회복의 시대도 있었다. 밤이면 어둡고 추운 교회 마룻바닥 위 자주색 방석에 무릎 꿇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전국 모든 교회마다 봄볕다. 부흥회와 집회를 할 때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통곡의 울부짖음과 콧물, 눈물이 예배당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그 회개에서 사람들은 질병과 문제, 상처와 고통과 가난으로부터 회복이 됐고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의 회개 눈물은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과거엔 회개를 설교하면 모두가 자신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눈물로 채웠지만, 지금은 회개 설교를 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소리로 듣고 불쾌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곤 한다. 회복과 치유는 회개로부터 온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라고 선포하지 않았는가.

한국교회는 지금 어떠한 시대인가.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 회복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다시 은혜의 시대가 오려면 예배이든 부흥회이든 기도회이든 모이는 데 힘써야 한다. 축복의 시대가 다시 오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섬겨야 한다. 회복의 시대가 오려면 모두가 회개하며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복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극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서로 하나 돼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결단의 시기이다. 선택의 시기는 지났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든 교회로 돌아오는 결단, 교회를 세우는 결단,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회는 모든 인류의 문제와 상황과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21C목회연구소는 매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목회계획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의 방향 설정과 미래 교회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토양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 원인은 교회의 가치, 교회의 권위, 교회의 질서, 교회의 거룩성을 향상하는 교회의 토양 작업에 매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저자 대린 패트릭의 말이다. “복음주의 성도들은 교회 역사를 극단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극단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대평가하는 경우는 성경에 따라 전통을 쫓지 않고 전통을 성경보다도 중시하는 것이다. 과소평가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역사가 현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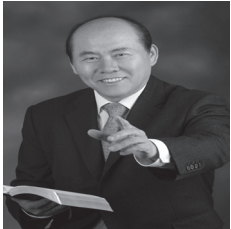
지난 시대를 거울삼아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보게 된다. 은혜가 넘치는 토양, 축복이 임하는 토양, 회복을 이루는 토양을 만드는 교회가 돼라.

김두현목사 21세기목회연구소장

나는 목회연구소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성상 주일예배 설교와 집회, 세미나 강사로 초청받아 많은 교회를 방문한다. 지난 20여년간 직접 경험한 한국교회의 토양은 심각할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회들의 예배 분위기가 기도 열기, 모임의 열정, 참여자 헌신도, 연합의 힘이 바닥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왜 그 시대의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도 있었다. 주일 아침 예배나 저녁예배, 수요기도회, 구역예배에는 모두 잘 모였다. 예배나 모임 숫자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마을

회락칼럼



심재선목사 회락교회 담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싱그러운 5월입니다. 그 전 같으면 결혼시즌인데 금년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결혼식장도 한가한 것 같습니다. 하기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점점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만 가고 있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지가 못합니다. 오는 2040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안 낳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를 늘려보려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늘기는커녕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려면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를 통하여 얻는 기쁨과 보람도 아주 큼니다. 수고 없이 얻는 행복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결혼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여도 쉽게 이혼을 합니다. 과거에는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와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운영하려면 세우신 분이 법칙을 따라야 순조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도 이기적 사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신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해 지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에 본인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회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가정은 무한한 포용과 배려와 이해와 관용과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에 모든 것이 병들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은 망각하고 권리만 서로 주장하다보니 실제로

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깨지는 것입니다. 책임은 크게 권리는 작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해타산을 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우승컵이나 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차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부는 한 편입니다. 같은 편끼리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을 할 때에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깁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기를 살려주려고 저주는 것입니다. 저주고도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한번 결혼을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배려를 하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좋아 보여도 함께 살다보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맞춰 사는 것입니다. 100%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반대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한 눈은 감고 한 눈으로만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대화하다가 싸움으로 발전하는데 자기 말만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만 잘 되어도 불화가 많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사과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표정을 부드럽게 온화한 얼굴과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사랑만 하기에다 짧은 인생인데 원수처럼 미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 첫 사랑할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심재선목사 회락교회 담임

소중한 인연으로 살아가는 부부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무조건 삼가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지켜주고 이해해주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편한 사이라고 해서 무례하게 굴면, 당장은 몰라도 결국 서로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자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를 들추어 상처를 주면 안됩니다 부부는 많은 것을 공유한 사람들이 까닭에 상대의 아픈 기억과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사가 형통할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어야 할 일이라고 여기다가도 부부간에 조금 어려운 일이라도 벌어지면 그 과거를, 그 약점을 과장하고 자기 유리하도록 해석해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깊은 상처를 남기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평가하지 마십시오 칭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듣게 되면 민망하지요. 하물며 단점을 지적당하는 것이야 괴롭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욕심은 그 대상이 물질이거나사람이거나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 자신의 못한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가 수긍할 수 없는 판단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람있게 보내십시오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변화가 바로 서로 알 수 없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라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꺼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새로운 공동의 관심사를 찾고 그에 몰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도 꽤 부지런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거친 말투, 폭력적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거칠고 예의 없는 말투가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폭력의 전조일 뿐입니다. 상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압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태도는 부부 사이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모욕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겨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자기 자식에게 전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효심은 무엇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효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부부생활을 이기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변화입니다만 그런 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주장이 분명하므로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나 불만스러운 것도 예누리 없이 솔직히 말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빈번히 다투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애당초 원만하게 살기

는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서로 참지 않으니까요.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보람을 누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평범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목표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보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그 시간에 당신이 선택한 한 여자 또는 한 남자를 위해,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인 자녀를 위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생각과 실천을 하는 데 망설이지 말고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김평일장로 가나안농군학교장



사설

코로나 시대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스라엘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박사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기고문에서 “평소에는 수년이 걸린 수 있는 결정이 몇 시간 안에 내려질 것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급하게 내려진 각종 정책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질병보유자를 신속히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제한을 받게 된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하라리 박사는 “상황이 악화되면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의 동선을 감시하는 앱의 사용을 넘어서서, 피부 속에 칩으로 심겨져 체온이 일정 정도 올라서면 정부 보건당국에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머칠전에 본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것을 보면서 지금 누군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불안함을 금할 길이 없다. 주일 예배 금지령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어 왔다. 그런 일을 불가능한 것이라며 굴복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겼으나 여지 없이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였다.

청교도 정신에 뿌리를 둔 미국에서도 그것이 가능하였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흡잡을 것이 없었던 다니엘은 감시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당시의 종교법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졌다. 앞으로는 우리가 한 모든 한 일이 다 들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이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바르게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제의 일상에 경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고, 재택근무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상담하고 진료하는 등의 비대면 비즈니스의 확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게 되었다. 예배도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 될 것이다. 교회 사역도 소그룹이나 심방사역의 필요도 약화 될 것이다. 교단 회의도 화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의 비대면의 확대뿐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깊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SNS를 통하여 매일 목상함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 교회나 목회자의 선호도가 더 강해질 것이고 개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영향력도 약화 될 것이다. 이것이 압박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통하여 가능하여졌다.

소셜 네트워크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길을 지금부터 교회와 교단이 준비해야 한다. 종교개혁이 인쇄기의 발명을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 출간하여 대중에게 보급하는 일에 활용함으로 개혁의 동력을 얻었듯이 이 시대의 새로운 복음 전파를 위한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어려운 지역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시대적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더 나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

설동욱목사 - 회복의 길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이 벽인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 읊처럼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도 없다고 할 만큼 절망적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사방이 캄캄해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낙심하여 로텐 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했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호렘산에 이르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회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무기 삼는 사람은 그 절망을 뚫고 나간다. 그래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만남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때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호렘산에 머물러야 할 때다.

영적인 충전을 위해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늘 소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인 것이다.

예수님이 본인의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답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간절히,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슬럼프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요 구원을 이끄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21세기 개혁신학의 요람 **총회신학원** 입학요강

2020학년도 전,후반기 특별장학생 및 신·편입생모집

■ 모집과정 및 자격

모집학과	모집과정	인원	구분	전형방법
학부과정	신학사(Th.B.)과정 신입	00명	주/야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자
대학원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신입	00명	주/야	M.Div 과정 졸업자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입			학사학위 소지자 동등 자격자(정규신학졸업)
특수반 - 강해설교반	강해설교, 설교작성, 설교전달을 집중강의하는 과정			
- 영어설교반	해외사역과 전문영어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발음, 영어구조, 전달 등을 교육하는 과정			
- 편목과정	본 교단에 가입하거나 목회자들이 정회원이 되게 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			

■ 전형일정 및 방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 수시 접수
 나. 전형방법 : ①서류 ②면접
 다. 전형일자 : 상시 모집
 라. 전형료 : 30,000원(원서대 무료)
 마.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졸업(하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동등 자격자는 해당 증명서 - 각 1부
 (학부과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동등 자격증명서(검정고시 합격))
 3) 당회장 또는 노회장 추천서 - 1부
 4) 주민등록등본 - 1통
 5) 반명함판 사진(원서부착포함) - 3매

■ 특전

입학생 전원 : 매학기 등록금(이사장학금) 50% 지원

- 장학혜택 - 재학 성적 우수자 :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 면제, 봉사자, 특기자 등에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수석졸업자 해외 유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원(M.Div) 졸업자는 대신 총회신학교와 연계된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미국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유학을 추천하면 유학 기간 중 규정된 장학금을 지급함
- 본교 졸업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음
- 미국 Reformed University(미 연방정부 인가 대학)와 연계하여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미국 유학을 도와주며 우수한 신학교에 추천하여 등록금을 지원함
- 본 신학원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통해 졸업 후 목회현장에서 성경 강해와 실천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계절학기(여름, 겨울)를 운영함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입학문의 : 010-9313-8986 010-4690-3301 010-5341-0154

지역별캠퍼스

서울 용산캠퍼스 / 경인 부천캠퍼스 / 경기 남양주캠퍼스
 서울 강북캠퍼스 / 영남 대구캠퍼스 / 010-9771-9409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총회신학원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3길 58(청파동) 청파중앙교회(02-702-0041)
<http://www.ds1961.com>

이사장 전광훈목사
 총회장 강대석목사
 총 장 김향주목사

